

벌써 約 五年前的 일이다. 李弘植先生과 같이 처음으로麟角寺를 찾았을 때에 이 碑石에 對應하는 浮屠를 確認하기 위하여 寺域으로 부터 溪流를 따라 約 一km 올라가서 部落 뒷산 俗稱「부도골」에 이르러 散亂된 塔材를 찾았고 그中 塔身石에서 空虛한 舍利孔과 「普覺國師」「靜照之塔」이라는 二行의 記銘을 發見하고 感慨無量한 바 있었다.

인즉 舍利奪取를 위한 韓末 日人の 所行이라고 古老들은 말하여 주었다. 그런데 이 보다 앞서서 이 浮屠는 大邱 徐某氏의 墳墓設置로 말미암아 原位置에서 약간 떨어진 地點으로 移建된 일도 있었다고 한다. 아마도 그 자리가 風水家의 소위 明堂자리이었던 까닭일까. 이와 같은 점진 受難과 蠻行이 있는 후 다시는 찾는 사람도 없이 버림을 받아왔던 것이 틀림없다. 三國遺事의 著者에 對하여 親近한 心情을 지녀 오던 兩人은 現場에서 이 浮屠의 再建을 의논한 바 있었으며 그 후 文教部나 道廳을 통하여 그 復舊를 서두르기도 하였다.

昨年 九月 二十二日 새벽에 新寧을 떠나 밀지않은 山中의 羅代寺址한 곳을 調査하고 北上하던中 이 浮屠再建의 소식을 듣고 잠간 麟角寺를 찾게 되었다. 그런데 意外에도 이 부도는 「부도골」을 떠나 寺門外 道路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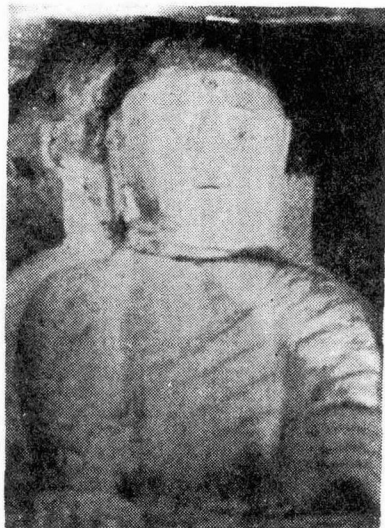
傍에 移建되어 있음을 보았다. 지난 봄에 面事務所와 軍人某氏의 손으로 옮겨왔다는 것인데 이왕 寺刹로 搬移할 바에야 塔碑와 나란히 세워야 할 것이 아니냐고 寺僧에게 따졌더니 浮屠는 境內에 아니세우는 法이라는 對답이었다. 그리하여 復原된 그 모습이 반갑기도 하면서 한편 서운한 느낌을 참을 수가 없었다.

이 浮屠는 八角圓堂型으로 上下의 蓮花臺가 있고 그 사이에 八角竿柱가 끼어 있는데 그 各面에는 動物像이 彫刻되어 있었다. 塔身 또한 八角으로 前面에는 記銘 後面에는 門扉形이 새겨졌고 左右六面에는 四天王立像과 蓮座위의 菩薩立像이 各一 軀씩 새겨져 있었다. 八角屋蓋위에 寶蓋와 仰蓮과 火焰寶珠를 갖추운 相輪一石이 놓이었는데 이 相輪만은 일찍부터 寺庭에 옮겨져 있어서 이 浮屠를 찾게 된 하나의 단서가 되었던 것이기도 하다. 이 浮屠는 石質도 치밀하지는 못하고 彫鑿가 鈍厚하며 結構의 솜씨도 아담스럽지 못한 것이 高麗下代의 作品임을 말하고 있다. 그러나 新羅以來의 傳統的樣式을 지니고 記銘에 의하여 一然의 墓塔임이 의심할 바 없으니 한층 所重한 遺構라고 하여야겠다. 그런데 筆者가 軍威三尊石窟을 처음으로 찾아간 것이 바로 이날 午後이었다. 이곳을 떠나 寺入口의 酒幕에서 아침을 들고 安東으로 直行하려다가 隣接한 義興面事務所에서 우연히 石窟의 存在를 확인할 수 있어 그곳서 車를 西쪽으로 돌려 八公山 깊숙히 찾아들었다. 그리하여 그 후 이 浮屠와 이곳서 約 五十里 西쪽인 軍威石窟을 함께 연상케 되었는데 바 이같은 調査의 因緣은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되었다. 復舊된 一然浮屠가 八公山石窟의 길로 引導한 것만 같이 느껴졌기 때문이다.

天安 晚日寺址 踏查記

金 永 培

天興寺址石塔을 實測하는 機會에 晚日寺址를 잠간 踏查한 바 있어서



그 現況을 簡單히 記
錄하여 두기로 한다.
晚日寺址는 天興寺
址에서 東쪽으로 溪
谷을 따라 約六km 쯤
들어가는 聖居山 中
腹에 있는데 이 寺址
에는 公州附近에 遺
存되어 있는 自然岩
窟을 利用한 寺址와

그 性格이 서로 비슷하여 매우 注目되는 바이다. 寺址에는 現在 小佛堂
이 있어서 香火가 繼續되고 있으며 寺址의 東쪽 絕壁 밑에는 自然的으로
立되어 있는 岩面에 降魔印의 如來座像이 거의 丸刻에 가까울 程度로 浮
彫되어 있는데 頭部는 破損된 것을 補修하고 全體에 白灰를 발라서 변모
된 모양을 나타내고 있으나 彫刻의 手法으로 보아 高古한 作品임을 느끼
게 한다. 佛像의 實測値는 總高一四三cm 肩幅六八cm 膝幅一一〇cm。第二
窟內에는 佛像이 安置되어 있지 않고 洞窟의 南쪽 斷崖岩壁에는 如來像으
로 推想되는 高約三m 可量의 磨崖佛이 彫刻되어 있는데 磨滅이 極甚
하여 全혀 面相이나 衣紋等을 알아볼 수 없을 程度이며 佛像이 浮彫된
岩面에는 木材를 결치고 지붕을 만들기 위한 四角形의 구멍이 뚫려있으
며 바위 앞에는 石築으로서 기둥을 세웠던 礎石이 남아 있다. 그리고 晚
日寺址에는 過去에 六朝佛樣式(註)의 石佛等이 남아 있었다고 傳하는
데 踏查時에는 發見할 수가 없었으며 附近의 바위틈을 자세히 찾아본즉
여러곳에 小形石像들이 끼어 있어서 知覺없는 사람들이 가져다가 내버
린 것으로 推測되는 바 全部 바위틈에서 꺼내다가 모은 것이 七軀인데 頭
部는 缺失되었고 胴體一部가 缺失된 것도 몇 개나 되는데 其中에는 三國
時代 手法이 엿보이는 것도 二軀있고 菩薩像의 胴體彫刻은 極히 優秀한
手法을 나타낸 것이 있어서 거의 모두 保存을 要하는 重要資料이다. 그



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. 寺址內에는 조그마한 三層石塔과 磨滅이 甚
하여 일른 알아보기 어려우나 十二支가 彫刻된 듯한 石塔基壇面石의 破
片 등이 있는데 날이 어두어서 더 仔細한 調査를 못한 것이 아쉽하다.
以上 概要만을 記錄하여 後日의 仔細한 調査를 期하고자 한다.

(註) 經部慈恩·百濟美術

資 料

土製 및 石製 小型塔의 新例 鄭 明 鎬

一、土製塔

調査된 塔으로서는 方型과 圓鍾型으로 前者(圖A)는 方型으로 흙을
빚어 竹刀로서 層을 簡單히 線刻으로 五層을 만들고 이 塔底面에 圓型
의 구멍을 파내어 經文을 挿入한 裝置가 되어 있다.

後者(圖B)는 硬質로 燒成되어 있는 圓鍾型의 三層小塔이다. 이는 上
層함에 따라 縮少되었으며 底面에는 아무런 裝置가 없다. 이러한 例는
稀少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곧 印度의 伏鉢型塔과 類似하다 할 것이
다.